

다양한 종류의 간염!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간염편



간염이란?



바이러스, 알코올, 혈액, 자가면역 등의 원인에 의해
간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바이러스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며,
가장 대표적으로 A, E, B, C형간염이 있습니다.



먼저, **A형간염**을 알아보까요?

정의

A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간염 질환**

감염경로

분변-경구 감염, **A형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 등

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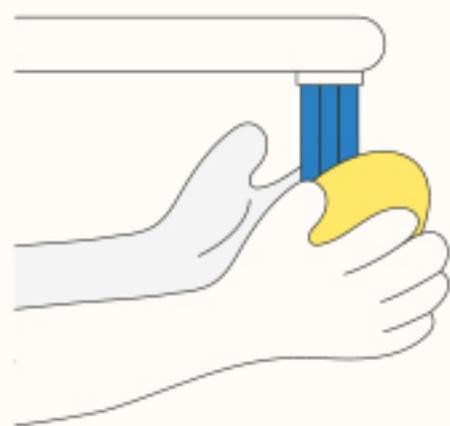
발열, 식욕감퇴, 구토, 권태감, 짙은 갈색 소변, 황달 등

치료

대증 치료로 안정을 취하고 고단백 식이요법 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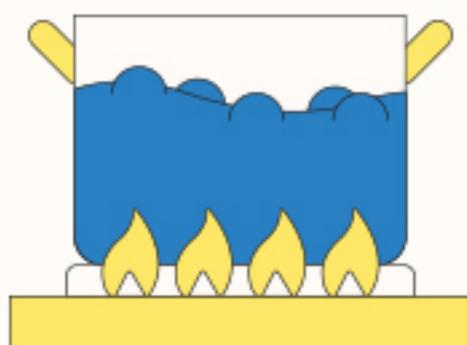


A형간염 예방방법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씻기



안전한 음식 섭취

끓인 물 마시기, 음식 익혀먹기,
채소나 과일은 깨끗이 씻어 껍질 벗겨먹기



예방접종

12-23개월의 모든 소아,
A형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고위험군
(A형간염 유행지역 여행자),
소아청소년이나 성인(주로 20-40대),
환자 밀접 접촉자

E형간염이란?

정의

E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 만성** 간염 질환

감염경로

분변-경구 감염, **E형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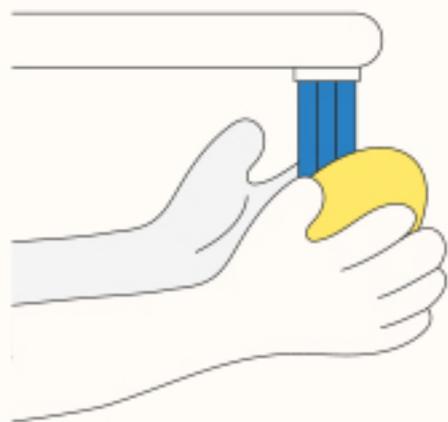
증상

발열, 식욕감퇴, 구토, 관절통, 짙은 갈색 소변, 황달 등

치료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유의 / 검증된 안전한 식수나 조리된 음식 섭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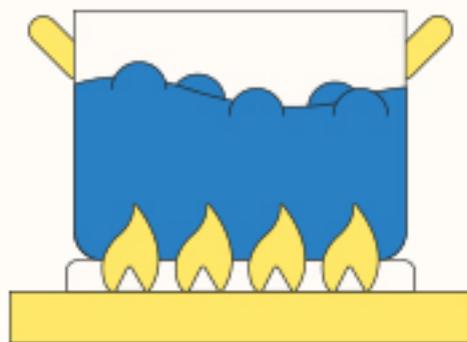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씻기



위생적 조리

깨끗한 위생상태에서 조리하기
돼지고기류, 날 어패류 등을 충분히 익혀 먹기



안전한 음식 섭취

끓인 물 마시기, 음식 익혀 먹기,
채소나 과일은 깨끗이 씻어 껍질 벗겨먹기

B형간염이란?

정의

B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 만성 간염 질환

감염경로

간염 산모에서 신생아로의 주산기감염, 성적접촉, 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 수혈, 주사기 공동 사용 등

증상

피로, 황달, 짙은 갈색 소변, 식욕감퇴, 구역, 근육통 등
(무증상 감염도 있으며, 급성간염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만성으로 발전)

치료

급성간염은 대증요법, 만성간염은 인터페론 및 항바이러스제 치료



B형간염 예방방법



예방접종

모든 신생아 및 영유아, 과거 B형간염의 감염증거와
백신 접종력이 없는 소아, 청소년 및 성인
(0, 1, 6개월 일정으로 3회 접종)

C형간염이란?

정의

C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 만성 간염 질환

감염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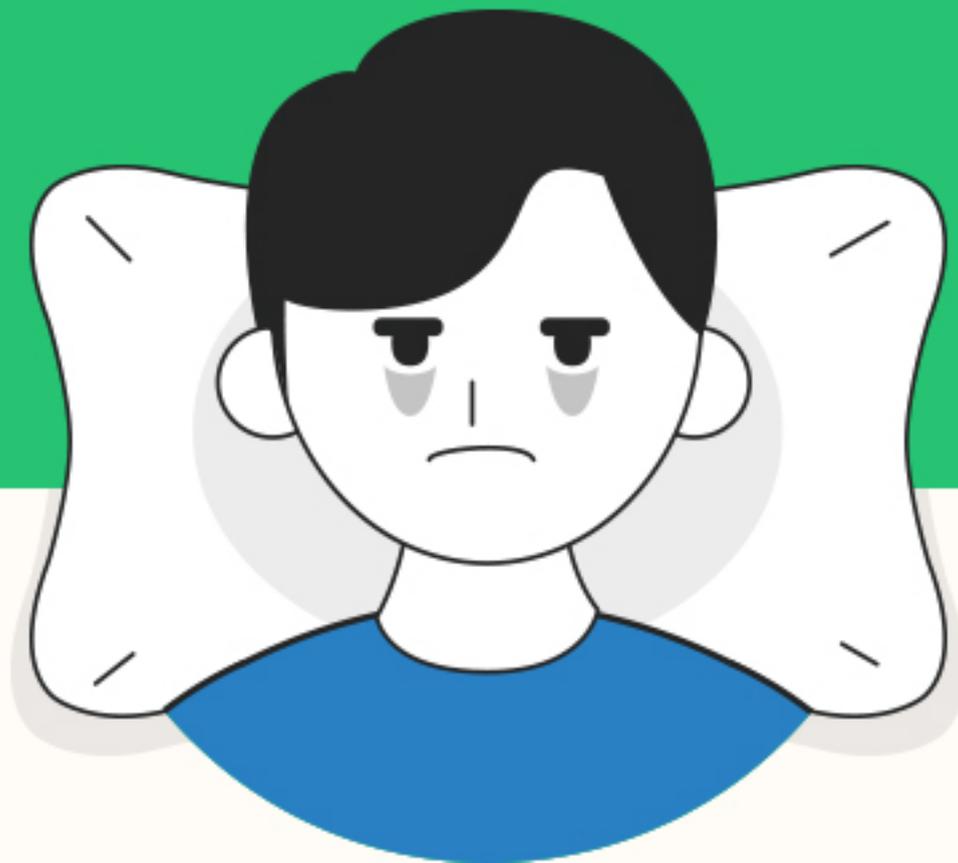
간염 산모에서 신생아로의 주산기감염, 성적접촉, 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 수혈, 주사기 공동 사용 등

증상

피로, 황달, 짙은 갈색 소변, 식욕감퇴, 구역, 근육통 등
(무증상 감염도 있으며, 급성간염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만성으로 발전)

치료

정기검진을 통한 진단율을 높임 / 치료제(약제 복용)로 완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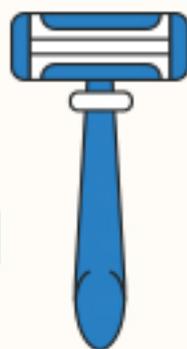
C형간염 예방방법



C형간염 검진 받기
간단한 채혈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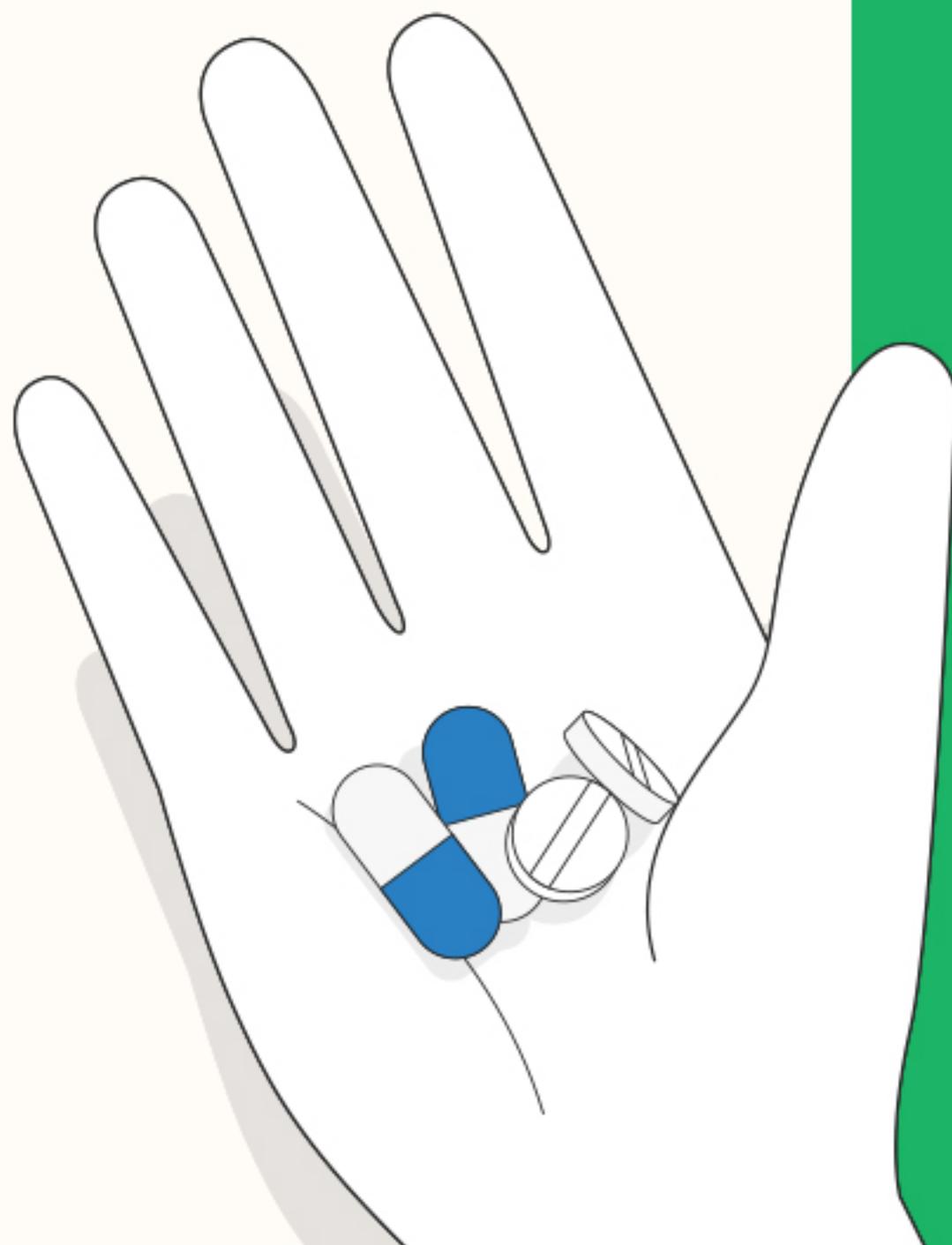
위생도구의 공동사용 금지
칫솔, 손톱깎이, 면도기 등



비위생적인 시술 금지
문신이나 피어싱 등



치료제가 있음
약제 복용으로 **완치가 가능!**



간염시리즈



한 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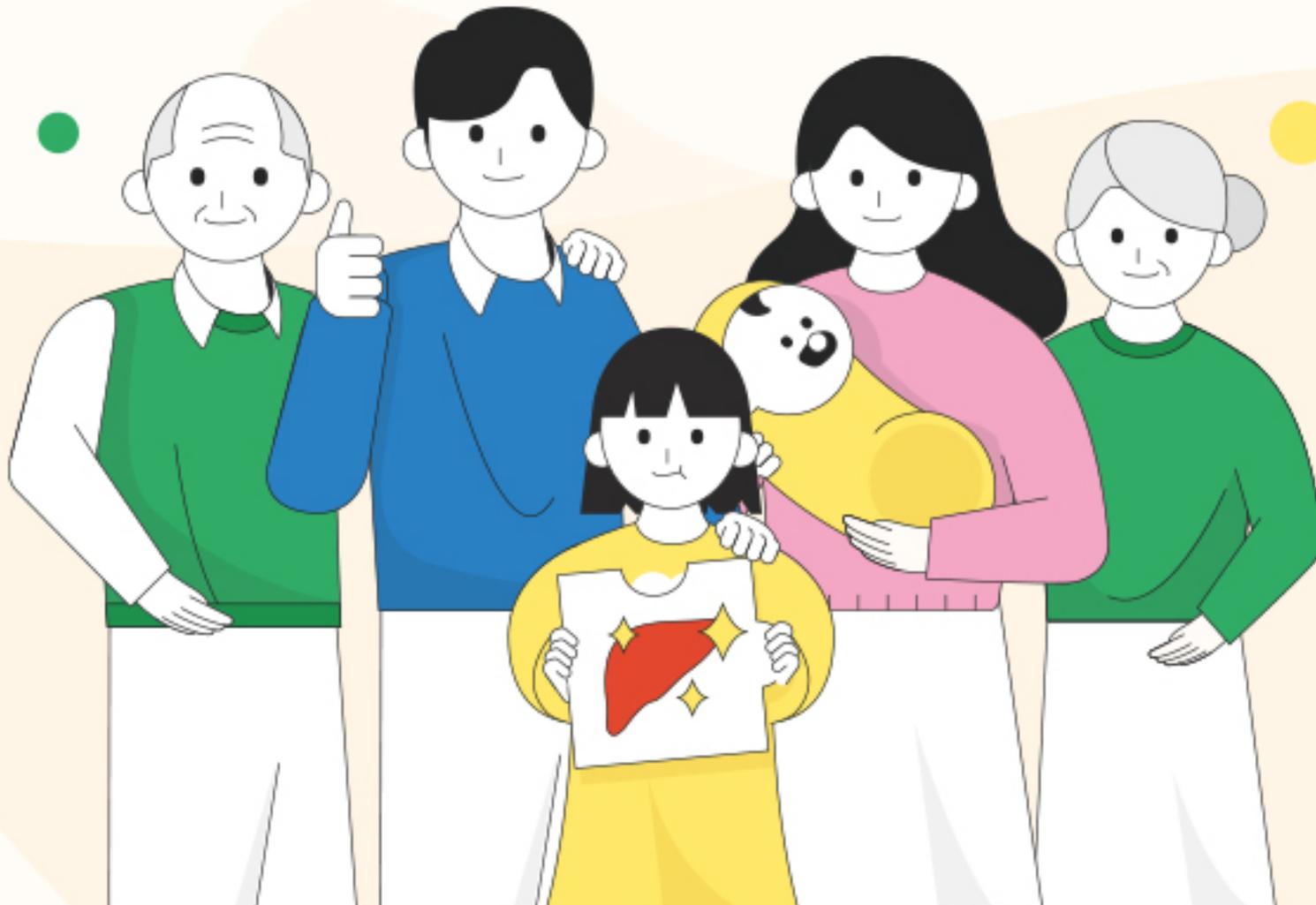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 **A**, **E** 형 간염 | 혈액매개 감염병 : **B**, **C** 형 간염

	경로	잠복기	증상
A형간염	분변-경구,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 등	15 - 50일 (평균 28 - 30일)	발열, 식욕감퇴, 구토, 권태감, 짙은 갈색 소변, 황달 등
E형간염	분변-경구,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 등	15- 64일 (평균 40일)	발열, 식욕감퇴, 구토, 관절통, 짙은 갈색 소변, 황달
B형간염	오염된 주사기 및 도구 사용, 성적접촉, 오염된 혈액수혈, 주산기 감염	12 - 160일 (평균 120일)	무증상(70-80%), 나머지 피로, 황달, 짙은 갈색 소변, 식욕감퇴, 구토, 근육통
C형간염	오염된 주사기 및 도구 사용, 성적접촉, 오염된 혈액수혈, 주산기 감염	14- 170일 (평균 70일)	무증상(70-80%), 나머지 피로, 황달, 짙은 갈색 소변, 식욕감퇴, 구토, 근육통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간염 예방수칙 꼭!** 지켜주세요.

- 철저한 위생관리와 예방접종을 통해 **간 건강을 지키세요!** -





대구광역시 감염병 소식지

제22-19호 21주

2022. 5. 15.~2022. 5. 21.

발행일 2022. 5. 25.(수) 발행처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전화 053-429-7990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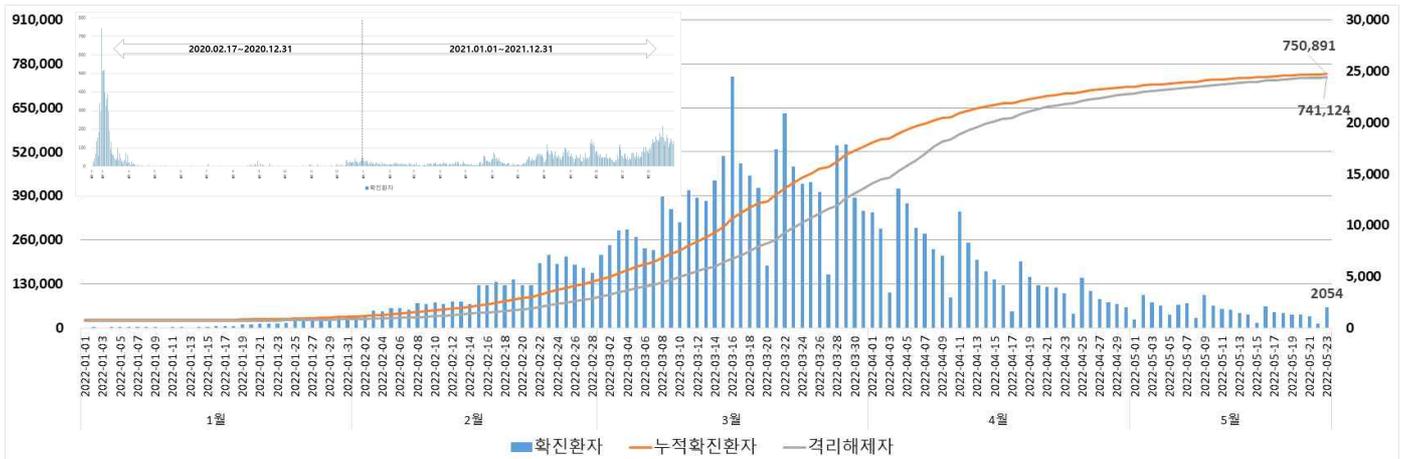
CONTENTS

- ① 대구시 코로나19 발생 현황 p 1
- ② 대구시 전수감시 감염병 신고 현황 p 3
- ③ 주간 표본감시 현황 p 4
- ④ 주간감염병 C형간염 p 6
- ⑤ 원숭이두창 예방수칙 및 Q&A p 8

1 대구시 코로나19 발생현황 (5. 24. 0시 기준)

대구시 코로나19 확진환자 누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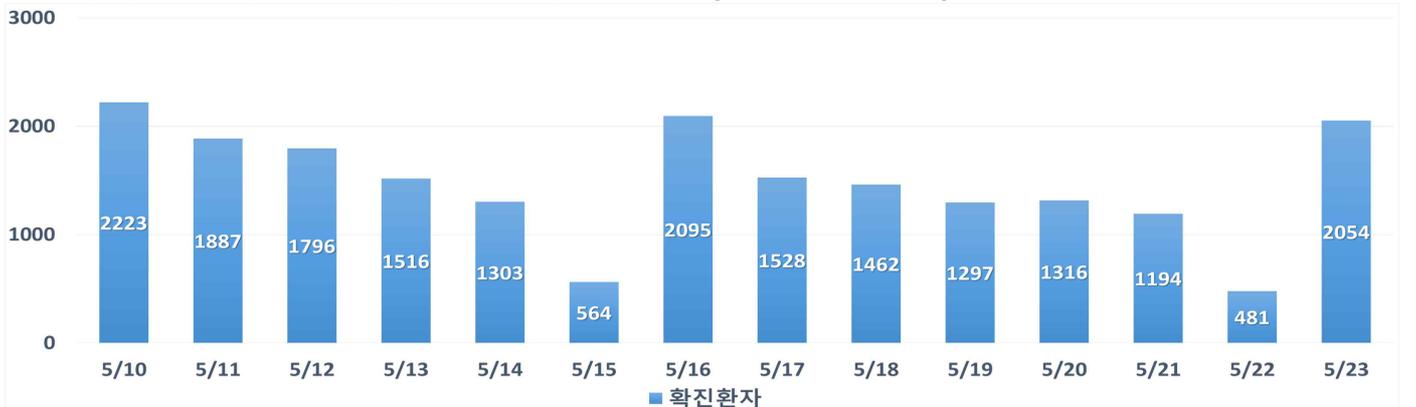
대구시 일별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현황



구분	확진환자(명)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명)	격리해제자(명)
계	750,891	31,478.46	741,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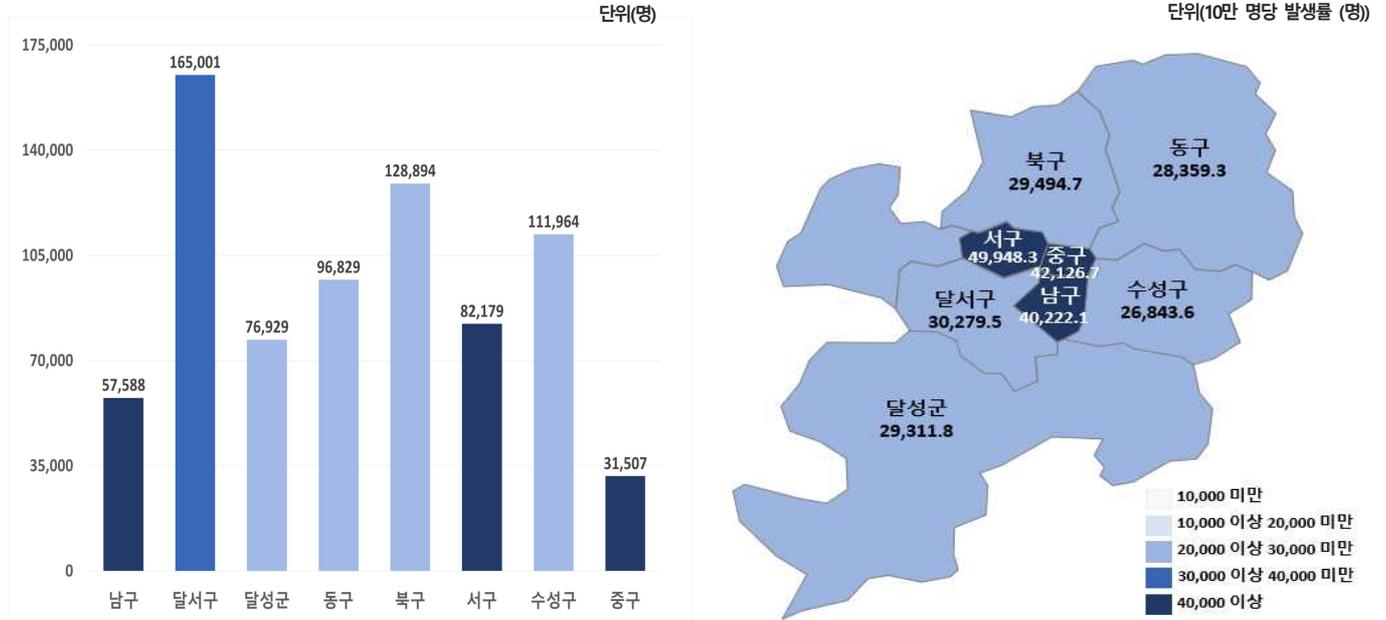
※ 2021 주민등록연앙인구 사용

대구시 최근 2주간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현황('22.5.10.-'22.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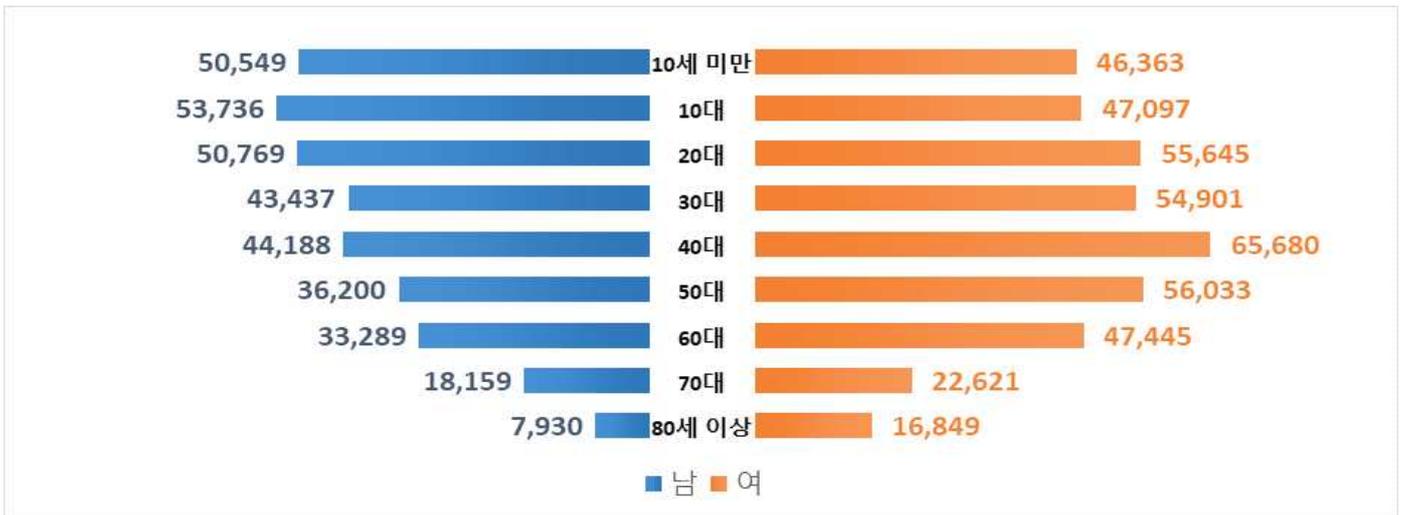
※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신고된 코로나19 확진환자로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

□ 대구시 코로나19 구군별 누적 현황 및 인구 10만 명당 누적 발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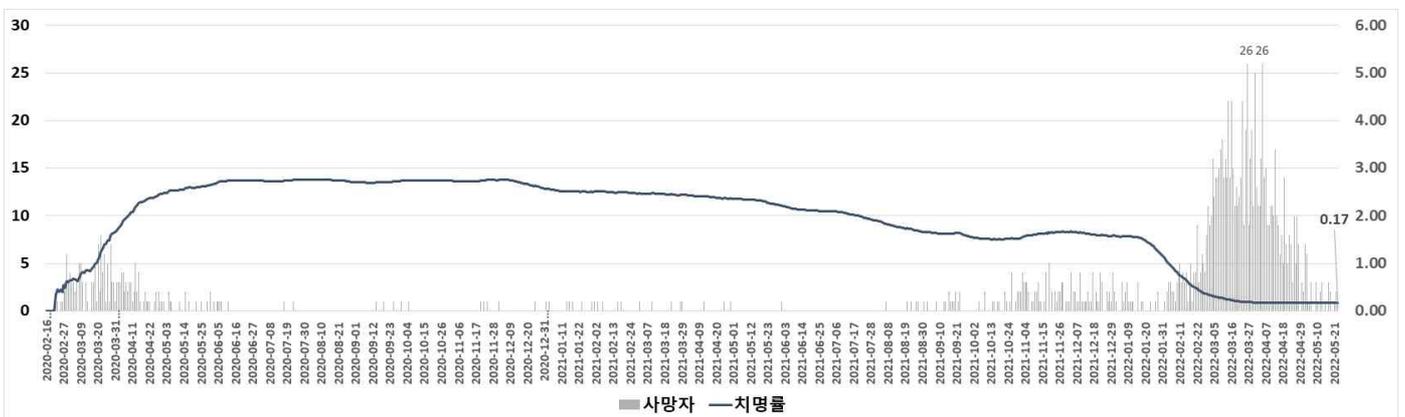
※ 2021 주민등록연앙인구 사용

□ 대구시 코로나19 성별, 연령별 누적 현황



□ 대구시 코로나19 일별 사망 현황

○ 대구시 '22. 5. 24. 0시 기준 사망자 1,286명으로 전주 대비 9명 증가하여 치명률은 0.17%로 전주 대비 동일



※ 2021 주민등록연앙인구 사용

2 대구시 전수감시 감염병 신고 현황

구 분	대구시							전국		
	2022년 주별			누계(21주)			연간	누계(21주)	연간	
	21주	20주	19주	2022년	2021년	5년 평균	2021년	2022년	2021년	
1급	보툴리눔독소증	0	0	0	0	0	0	0	5	0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0	0	0	0	0	-	0	0	0
2급	결핵	-	11	14	341	420	425	910	6,494	18,692
	수두	13	7	5	231	384	1,261	835	6,188	20,219
	홍역	0	0	0	0	0	2	0	0	0
	콜레라	0	0	0	0	0	0	0	0	0
	장티푸스	0	0	0	1	0	2	3	19	63
	파라티푸스	0	0	0	1	1	1	2	15	42
	세균성이질	0	0	0	0	0	3	0	8	15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0	1	0	2	1	1	7	32	153
	A형간염	1	0	0	22	30	38	64	986	6,237
	백일해	0	0	0	1	0	4	0	13	23
	유행성이하선염	3	6	2	95	142	221	387	2,555	9,369
	풍진(선천성)	0	0	0	0	0	0	0	0	0
	풍진(후천성)	0	0	0	0	0	0	0	0	0
수막구균 감염증	0	0	0	0	0	0	0	0	0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0	0	0	0	0	0	0	0	1	
폐렴구균 감염증	0	0	0	7	4	6	5	149	235	
한센병	0	0	0	0	0	0	0	0	5	
성홍열	0	0	0	5	5	149	8	179	657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0	0	0	0	0	-	0	1	2	
카피페넬내성장내세균속군종(CRE) 감염증	7	9	14	532	634	-	1,542	9,696	19,811	
E형간염	0	0	0	6	2	1	6	205	434	
3급	파상풍	0	0	0	0	2	3	2	5	22
	B형간염	0	2	1	8	4	2	8	164	414
	일본뇌염	0	0	0	0	0	38	1	0	12
	C형간염	3	3	2	122	187	-	333	3,290(1)	9,635
	말라리아	0	0	0	0	0	2	1	23(3)	278
	레지오넬라증	0	0	0	6	6	3	21	100	358
	비브리오패혈증	0	0	0	0	0	0	3	2	54
	발진열	0	0	0	0	0	2	0	16	33
	쯔쯔가무시증	0	0	0	2	10	2	99	314	5,533
	렙토스피라증	0	0	0	0	1	0	4	28	207
	브루셀라증	0	0	0	0	0	0	0	4	7
	신증후군출혈열	0	0	0	2	4	2	5	47	266
	CJD/vCJD	0	0	0	1	2	1	4	5	72
덴기열	0	0	0	0	0	1	0	2	1	
큐열	0	0	0	0	0	0	1	20	48	
라임병	0	0	0	0	0	0	0	2	1	
유비저	0	0	0	0	0	0	0	0	0	
치쿤구니야열	0	0	0	0	0	0	0	2	0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0	0	0	0	0	0	6	13	164	
지카바이러스감염증	0	0	0	0	0	-	0	0	0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감염병감시체계를 통하여 보고된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를 기초로 집계됨(의료기관 신고일 기준)
 * 지역별 통계는 환자주소지 기준으로 집계함(단, VRSA 감염증과 CRE 감염증은 신고한 의료기관 주소지 기준임)
 * 2022년도 통계는 잠정통계로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21주(2022. 5. 15.~2022. 5. 21.) 감염병 신고현황은 2022. 5. 25.(수)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 보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 누계는 1주(2021. 12. 26.~2022. 1. 1.)부터 해당 주까지의 누적 수치임
 * 5년평균은 최근5년(2017-2021)의 1주부터 해당 주까지 누적수치들의 평균임
 * 일부 감염병은 법령개정으로 추가된 이후부터 합산된 평균 통계임(중동호흡기증후군 2015, 지카바이러스감염증 2016, CRE감염증, VRSA감염증, C형간염 2017)
 * 결핵은 20주(2022. 5. 8.~2022. 5. 14.) 신환자 신고현황을 수록한 질병관리청 「주간건강과질병 15권 20호」 및 「2021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 참고
 * 최근 5년간(2017-2021) 국내에 발생하지 않은 감염병 및 별도의 감시체제로 운영되는 HIV/AIDS는 제외함
 * () 괄호 안은 국외유입 사례

3 주간 표본감시 현황

*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표본감시 웹보고 자료 및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 20주차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병원급 이상)

* 2017년 31주차부터 표본기관을 전국 103개에서 196개로 확대 (대구 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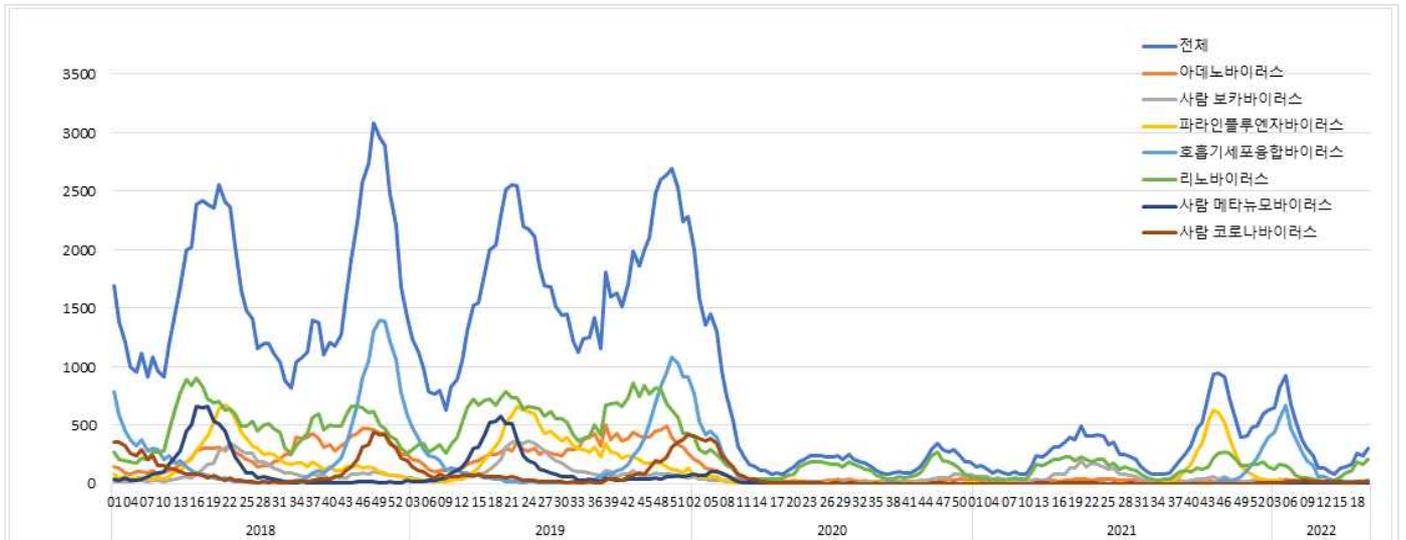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참여기관에 입원한 환자 감시 자료를 보고 시점 기준으로 분석한 잠정통계

주별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 신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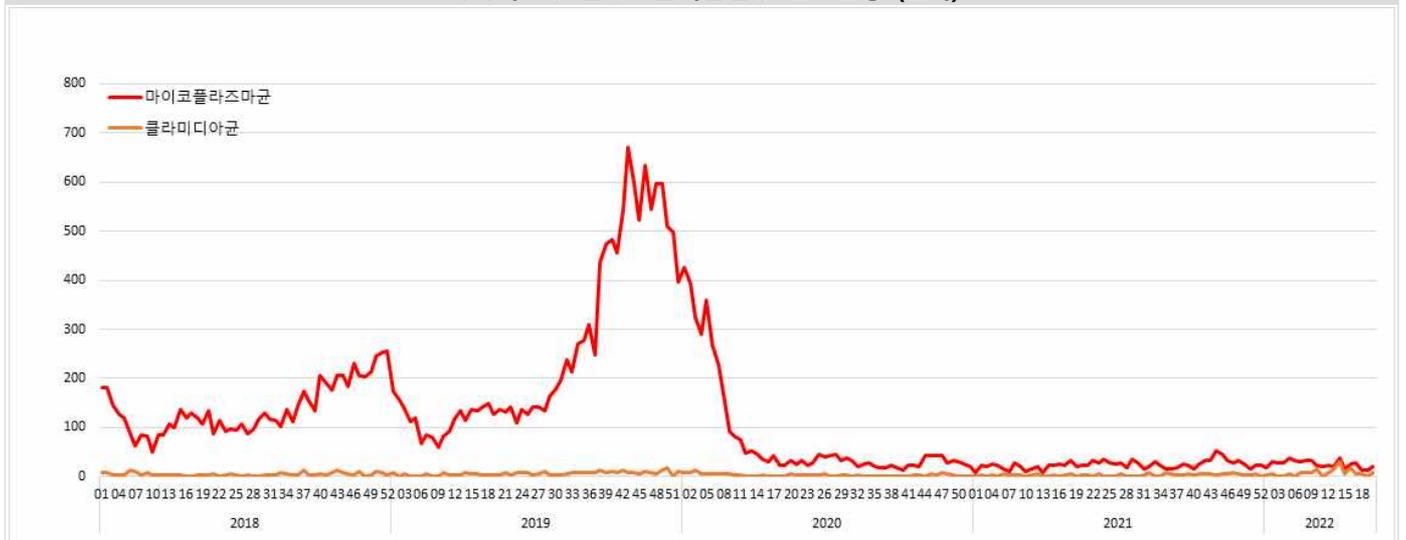
단위(명)

지역	구분	바이러스별 입원환자 신고 현황							세균별 환자 신고 현황	
		HAdV	HBoV	HPIV	HRSV	HRV	HMPV	HCoV	Mycoplasma	Chlamydia
전국	누계	368	250	258	4,208	2,041	9	324	512	149
	20주	31	13	13	25	204	0	19	21	7
대구	누계	33	3	21	333	77	0	30	0	2
	18주	3	0	0	3	9	0	2	0	0
	19주	0	0	1	3	5	0	2	0	0
	20주	0	0	0	0	2	0	0	0	1

* HAdV: 아데노바이러스, HBoV: 보카바이러스, HPIV: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HRSV: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HRV: 리노(라이노)바이러스, HMPV: 메타뉴모바이러스, HCoV: 코로나바이러스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신고현황 (전국)



세균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신고현황 (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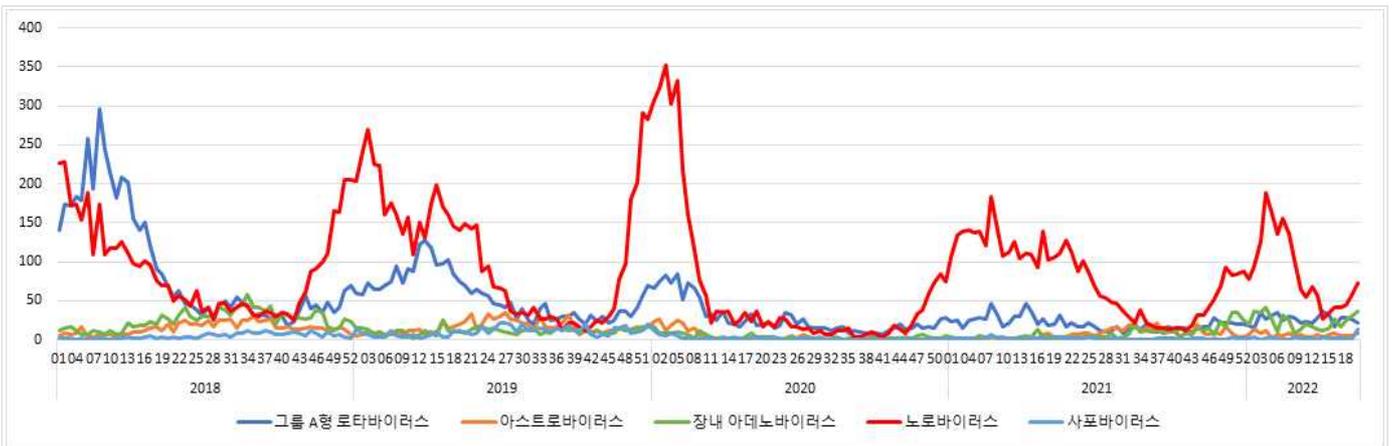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 장관감염증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병원급 이상)
 - * 2017년 31주차부터 표본기관을 103개에서 197개로 확대 (대구 8개)
-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참여기관의 환자 감시 자료를 신고 시점 기준으로 분석한 잠정통계

주별 바이러스성 장관감염증 환자 신고 현황

단위(명)

지역	구분	그룹A형 로타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아스트로바이러스	사포바이러스
전국	누계	526	1,738	448	127	40
	20주	22	73	36	8	13
대구	누계	21	55	34	2	1
	18주	3	2	2	0	0
	19주	1	2	1	0	0
	20주	1	4	3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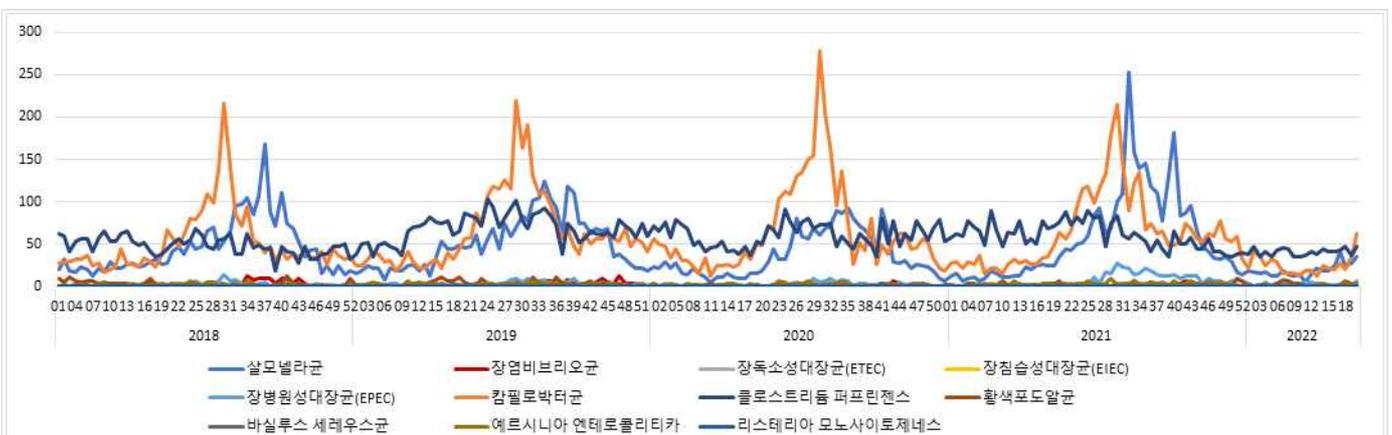


바이러스성 장관감염증 신고현황 (전국)

주별 세균성 장관감염증 환자 신고 현황

단위(명)

지역	구분	살모넬라균	장염 비브리오균	대장균	캠필로박터	클로스트리듬 퍼프린젠스	황색포도알균	바실러스 세레우스균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전국	누계	383	1	70	507	824	52	4	29	5
	20주	36	0	6	63	48	2	0	3	0
대구	누계	21	0	0	7	21	0	0	1	0
	18주	0	0	0	0	5	0	0	0	0
	19주	2	0	0	0	1	0	0	0	0
	20주	2	0	0	0	1	0	0	0	0



세균성 장관감염증 신고현황 (전국)

4 주간감염병 C형간염

※ 감염병 신고현황은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보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22.5.18. 기준)

□ C형간염

○ C형간염 바이러스(Hepatitis C virus, HCV) 감염에 의한 급만성 간질환

○ 병원체

- Flaviviridae과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 8종의 유전형이 있음
- 세계적으로 1,2,3형이 광범위하게 흔하며 4-8형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음
- 우리나라에서 흔한 HCV 유전형은 1b형(45~90%)과 2a형(26~51%)이고, 기타 유전형이 보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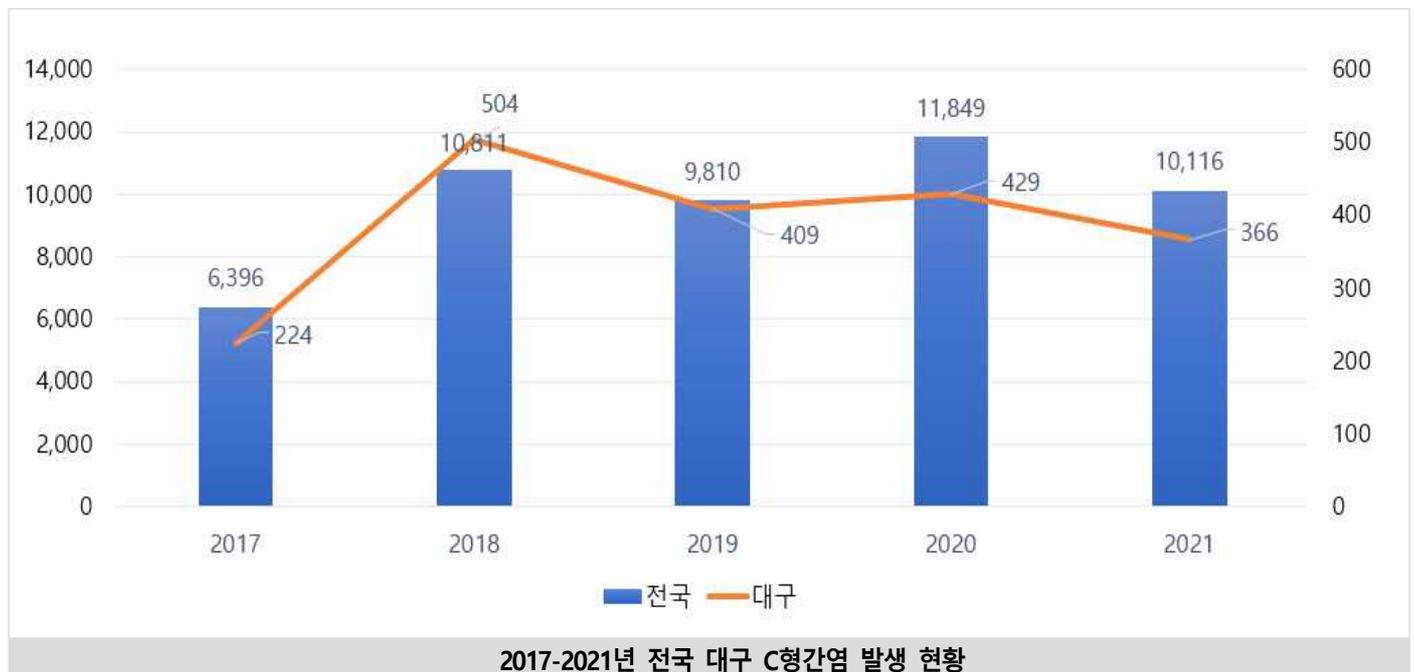
○ 역학적 특성

- 주사기 공동 또는 재사용, 혈액투석, 성접촉, 모자간 수직 감염 등 혈액매개 감염으로 전파됨
- HCV에 오염된 기구를 이용한 문신 및 피어싱 시술 등으로 전파되며 과거에는 수혈이 감염의 주요 원인이었으나 헌혈자 선별검사 후 감소하여 2005년 이후 감염사례 없음
- 급성 C형간염의 평균 잠복기는 7-8주로 대부분 무증상이나 드물게 몸살, 피로, 오심, 식욕부진, 우상복부 불쾌감 등의 비특이적 증상이 발생함
- 만성 C형간염 또한 대부분 무증상이며 일부 환자에서 피로, 오심, 근육통, 관절통, 체중감소 증상이 나타남
- 급성 감염 후 50-80%가 만성 간염으로 이행됨
- 만성 C형간염은 지속적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5-25%에서 간병변증으로 진행되고 간경변증 환자의 1-4%에서 간암 발생함

□ 2017-2021년 전국·대구광역시 C형간염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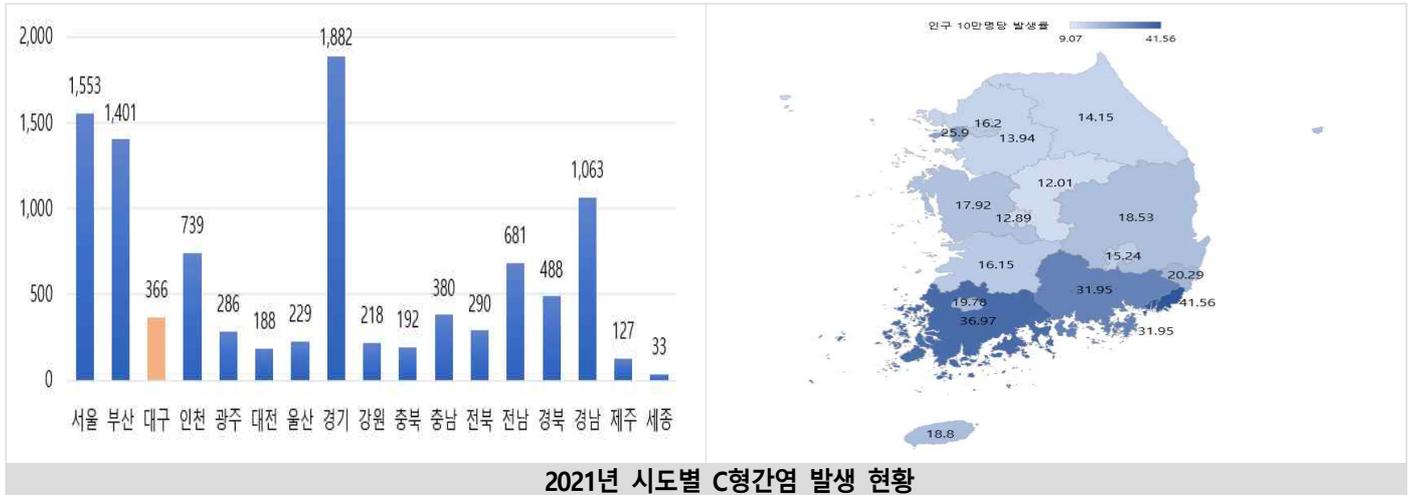
○ (전국) C형간염은 2017년 6월부터 전수감시로 전환된 이후 2017년 6,396건, 2018년 10,811건, 2019년 9,810건, 2020년 11,849건, 2021년 10,116건으로 신고되었으며 매년 비슷한 양상을 보였음

○ (대구) 2019년 50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2021년 366건 발생하였음



2021년 시도별 C형간염 발생 현황

- 2021년 시도별 발생은 경기, 서울, 부산, 경남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고, 세종이 33건으로 가장 적게 발생하였음
-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부산, 전남, 경남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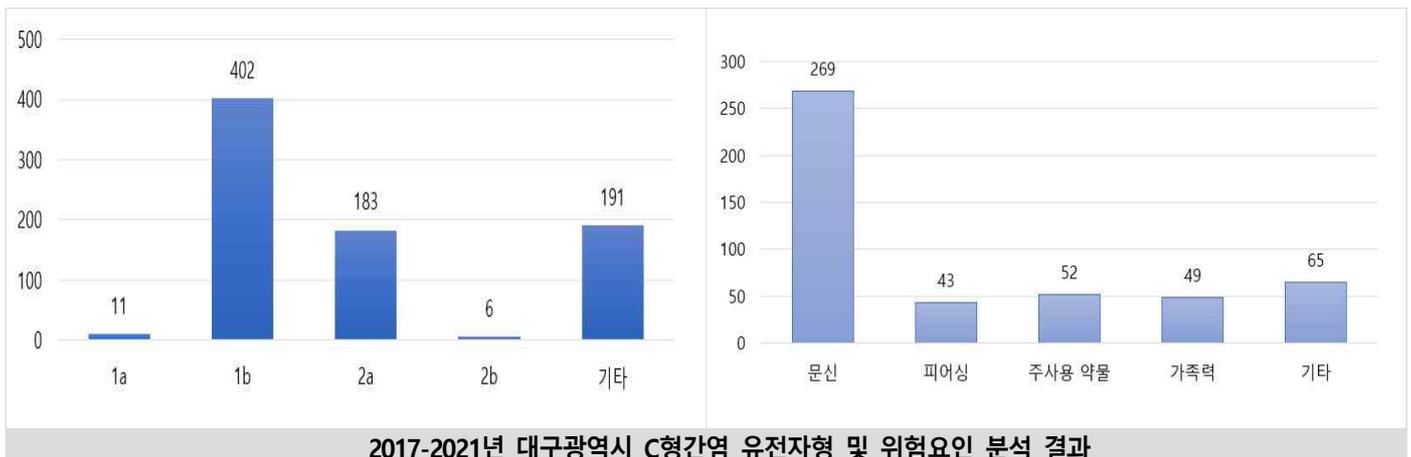
2017-2021년 성별·연령별 C형간염 발생 현황

- C형간염은 주로 40세 이상에서 발생하였으며 전체 발생의 94.9%를 차지하였음



2017-2021년 대구광역시 C형간염 유전자형 및 위험요인 분석 결과¹⁾

- 세부 유전자형 분석 결과 1b형이 40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191건, 2a형이 183건으로 확인되었음
- C형간염 발생 비의로 위험요인은 문신 269건, 기타 65건, 주사용 약물 52건 순으로 확인되었음



1)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C형간염 사례조사서 기준으로 작성함

5 원숭이두창(Monkeypox) 예방수칙 및 Q&A

□ 원숭이두창 예방수칙

○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 수칙

- 마스크 착용 및 개인 위생 수칙 준수
-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 보건인력 환자 관리 시 상황에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리 조치 적절 수행

○ 원숭이 두창 발생지역 방문 시/방문 후 주의사항

- 방문전, 원숭이두창 풍토병 지역 및 발생지역 확인
- 아프리카 등 발생지역에서 설치류, 영장류 및 동물사체 접촉금지, 야생고기 다루거나 먹지 않기
- 원숭이두창 (의심)환자와 접촉 금지
- 귀국 후 21일간 발열 및 기타 관련 증상 있을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먼저 상담 문의
- 귀국 후 검역시 검역관에게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원숭이두창 Q&A

Q. 원숭이두창은 사람에게 어떻게 전파되니까?

- 감염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타액, 소변, 구토물 등) 등이 피부 상처 또는 점막을 통해 직접 접촉으로 감염되거나, 환자의 성 접촉으로 정액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옷, 침구류, 감염된 바늘 등이 사람의 점막, 피부 상처 등에 직접 접촉하여 감염될 수도 있으며, 감염된 원숭이, 다람쥐 등 동물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Q. 원숭이두창의 잠복기는 어떻게 되나요?

- 감염 후 5~21일(평균 6~13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Q. 원숭이두창의 주요 증상은?

- 발열, 두통, 근육통, 요통, 근무력증, 오한, 허약감 등을 시작으로 1-3일 후에 얼굴 중심으로 발진 증상을 보이며, 원심형의 몸의 다른 부위(특히 사지)로 발진이 확산됩니다.
- 구진성 발진은 수포, 농포 및 가피 등으로 진행되며 특정 부위 발진은 대개 같은 진행 단계인 것과 림프절병등이 특징이며 증상은 약 2-4주 지속됩니다.

Q. 원숭이두창의 감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원숭이두창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혈액 및 체액 접촉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야생동물 취급, 섭취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